

‘좋은 일자리’ 분포의 지역별 변화와 이행과정의 결정요인*

The change in Regional Distribution and transition of ‘good jobs’ and
its Determining Factors

송 영 남**

Song, Yong-Nam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실증분석
-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창출이다.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2020 국
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일자리공시제를 시행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일자리 양의 증가보다는 일자리 질의 향상이 더욱 중요하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빈부격차를 감소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과 퇴출 등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KLIPS
자료에 포함된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변수와 전년도의 ‘일자리의 질’이 ‘중
은 일자리’를 가질 확률에 대하여 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1997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의 10년 동안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 및 퇴출에 대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교
육수준, 성별, 직종 등 사회경제적 변수가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년도에 ‘좋은 일자리’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성, 블루칼라, 소규모기업 근로자,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 본 논문은 전북대학교의 2007년 특별연구기반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논문 접수일: 2011. 8. 10, 심사기간(1차): 2011. 8. 11 ~ 2011. 9. 23, 게재확정일: 2011. 9. 23

근로자가 한 번 '좋은 일자리'에서 벗어나면 다시 진입할 확률이 비교집단에 비해서 크게 낮으며 지역변수는 좋은 일자리의 '진입, 퇴출'에 유의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각 지역의 일자리창출정책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주제어 : 좋은 일자리, 지역별 격차, 좋은 일자리 진입과 퇴출, 한국노동패널

Korean government, desperate in creating more jobs, recently has initiated various employment policies including '2020 National Employment Strategy' and has mandated local governments' 'Public Announcement of New Job Creation' aiming at creating more jobs in Korea. Most local governments, however, are concentrating on increasing number of jobs but ignoring quality of jobs, which can be detrimental to future jobs in Korea. In order to maintain 'good jobs' in Korea, we need to understand the factors which can help us creating 'good jobs' and cause transition between 'good jobs' and 'not good jobs'.

In this study, using KLIPS data, we analyzed the determining factors of 'good jobs' and transition between 'good jobs' and 'not good jobs' during 1997 and 2007 using logit model and derived political implication from the resul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level, sex, job categories, and previous year's job quality affects the probability of holding good job. Second, female, blue collar, small size enterprises, nonregular workers, and those with 'not good jobs' in previous year have lower probability of getting goods. Third, there isn't any significant regional effects on the transition between 'good jobs' and 'not good jobs'.

□ Keywords : Good Jobs, Regional Distribution, Transition in quality of job, KLIPS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창출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들어섰고 성장세 역시 둔화되어 고용창출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일자리 질의 양극화가 발생하여 분배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일’을 통하여 빈곤퇴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자리 창출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2020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일자리공시제를 시행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공시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동안의 일자리창출계획을 지역에 공시하고 매년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여 재정지원의 차등화를 계획하는 등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에 더욱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보수가 좋지 않은 단순한 ‘그저 그런 일자리’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분배상황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14% 정도가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취업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취업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금재호 (2003)). 또한 보수가 좋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유보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이가 커지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인적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실제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지난 10여년동안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보수가 좋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의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는 인적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커다란 국가적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고 있다.¹⁾ 따라서 단순한 ‘그저 그런 일자리’보다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빈부격차를 감소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과 퇴출 등의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자료에 포함된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전년도의 ‘일자리의 질’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확률에 대하여 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1997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의 10년 동안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 및 퇴출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1) 지난 10여년 동안에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매년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11년 2월 사이의 10년 동안에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47.2%에서 43.8%로, 43.4%에서 40.1%로 크게 하락하는 등 청년노동시장의 최근 현황은 이러한 현상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여 논의한다. 제 III장에서는 먼저 본 논문에서 이용한 연구자료에 대한 설명과 좋은 일자리의 정의, 그리고 분석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아주 좋은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에 대하여 로짓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하고 ‘좋은 일자리 분포’의 현황 및 변화의 형태, 특히 지역별 분석과 함께 ‘좋은 일자리’의 진입과 퇴출의 형태에 대하여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IV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한다.

II. 이론적 배경²⁾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직업의 안정성이 크게 하락하고 일자리 질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국내의 노동시장형태가 크게 변화하였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금재호, 2003). 따라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 ‘좋은 일자리’의 결정요인 등, ‘좋은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난 10 여년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좋은 일자리’의 판단기준은 아주 다양하다. 산업심리학에서는 직무만족도,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위세, 경제학에서는 임금과 부가급여 등을 ‘좋은 일자리’의 판단기준으로 설정하였고, 방하남 등 (2006)은 임금보다는 ‘고용안정성’과 ‘일의 성격’이 ‘좋은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주장하였다. 방하남 등 (2006)은 그 일자리로부터의 보상(경제적 측면), 직업적 위세(사회적 측면), 그리고 근로자가 갖게 되는 직무만족도(주관적 측면)를 ‘좋은 일자리’의 판단기준으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KLIPS의 자료와 일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는 ‘고용안정성’과 ‘보수’가 ‘좋은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분석되는 등, ‘좋은 일자리’의 판단기준이 아주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의 판단기준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 ‘좋은 일자리’ 종합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며 방하남 등(2006), 석재은 외(2005) 등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기회, 임금, 노동시간과 같은 일자리 특성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사회적 안전망의 수준까지 고려한 11개의 지표 및 28개의 세부항목들을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와 함께 통계적 측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자리의 어느 특성이 ‘좋은 일자리’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지는 연구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직무만족도, 고용안정성, 사회적 위세, 비전 등의 보수를 제외한 다른 ‘좋은

2) 본 장의 일부내용은 (송영남(2010))에서 발췌·인용함

일자리’의 특성은 객관적인 정량화가 어렵고, 보상임금격차를 제외한 일자리 안정성, 비전, 사회적 인지도 등, ‘좋은 일자리’의 대부분의 특성이 보수와 ‘정’의 관계에 있다 (Clark,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를 기준으로 ‘좋은 일자리’를 정의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좋은 일자리의 나머지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보수만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규정함으로써 편향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젊은 구직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격한 처우 격차’로 인하여 기대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청년들의 실업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위하여 ‘보수’를 ‘좋은 일자리’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를 기준으로 ‘좋은 일자리’를 정의하고 분석한 선행연구는 Morissette와 Johnson (2005), Levy 와 Michel(1991), 그리고 일부 ‘좋은 일자리’에 대한 연구가 있다. Morissette와 Johnson (2005)은 시간당 임금수준을 ‘좋은 일자리’의 기준으로 하여 캐나다의 ‘좋은 일자리’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Levy 와 Michel(1991)은 근로에 대한 ‘보수’가 중산층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수준이거나 소득분포의 중간 수준의 상태일 경우를 ‘좋은 일자리’로, Ahlburg, et al(1995)는 빈곤선의 200% 이상 또는 300% 이상의 보수를 보장하는 일자리를 ‘좋은 또는 아주 좋은 일자리’로 정의하였으며, 2003년도의 KLIPS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가구주가 ‘보수’가 빈곤선의 300% 수준 이상이 되어야 ‘좋은 일자리’라고 응답하였다. 최근 송영남(2010)은 KLIPS자료를 이용하여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일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1998년도와 2007년도의 빈곤선 150% 이상의 보수를 제공하는 ‘괜찮은 일자리’, 빈곤선 200% 이상의 보수를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빈곤선 300% 이상의 보수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일자리’로 정의하고 일하는 가구주의 ‘좋은 일자리’ 결정요인의 분석을 하였으며 성별, 지역, 직종, 정규직 여부 등의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범위가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되는 집단을 제외한 일하는 가구주에 한정되었고 전년도의 일자리의 질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여부, 또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선행연구 (송영남(2010))의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아주 좋은 일자리’의 정의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전년도 일자리의 질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게 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1997년에서 2007년 사이에 사회·경제적 요소의 영향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며 1997-2007년 사이의 ‘좋은 일자리’의 변화추세를 이용하여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3) 4)}

Ⅲ. 실증분석

본 연구는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패널자료(KLIPS)와 매년 12월 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은 국내 유일의 노동 관련 패널자료로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특징을 모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와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매년 조사하며 1998년에 1차 조사를 시작하여 2008년 자료까지 공시되어 있다 (금재호(2003)).

최저생계비 자료는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된 자료를 이용하였고 2000년도 이전의 최저생계비 자료는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2000년 이후의 최저생계비 자료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의 가구는 5인 가구와 6인 가구의 차이를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송영남(2010)).⁵⁾

<표 1> 최저 생계비

(단위 : 천원/월)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인가구	292	314	317	324	334	345	356	368	401	418	436	463
2인가구	483	521	525	537	553	572	589	610	669	701	734	784
3인가구	664	716	722	738	760	787	810	839	908	940	973	1,027
4인가구	835	900	908	928	956	990	1,019	1,055	1,136	1,170	1,206	1,266
5인가구	950	1,024	1,033	1,056	1,087	1,125	1,159	1,200	1,303	1,353	1,405	1,488
6인가구	1,072	1,155	1,165	1,191	1,227	1,270	1,308	1,354	1,478	1,542	1,610	1,712

주: 7인 이상 가구에는 5인과 6인의 차이(1997년: 122천원, 1998년 131천원, 1999년 132천원)를 더함 자료 : 보건복지부 공표자료

출처: 송영남(2010)

- 3) '좋은 일자리'에서 '그저 그런 일자리'의 이행과정은 일자리 상실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4) 지역별 '좋은 일자리' 분포의 동태분석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 및 퇴출이 분석대상이며 따라서 일자리 상태의 변화도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일하는 가구주보다 16세 이상의 전체 가구주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 5) 지역별로 가구소득수준과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국기준의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수준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공표자료는 지역별 추정치가 존재하지 않아 본 자료의 한계가 있음.

이 장에서는 1998년도(제 1차 KLIPS)와 1999년도(제 2차 KLIPS) 자료, 그리고 2008년도(제 11차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제 1절에서는 각 년도의 ‘좋은 일자리’의 정태적 결정요인과 1997년에서 2007년 사이의 각 결정요인들의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제 2절에서는 1997년도와 1998년도 사이, 그리고 1998년도와 2007년도 사이의 ‘좋은 일자리’ 분포의 이행과정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좋은 일자리’의 정태적 결정요인 분석

〈표 2〉는 KLIPS의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여 빈곤선 150% 이상의 보수를 제공하는 ‘괜찮은 일자리’, 빈곤선 200% 이상의 보수를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빈곤선 300% 이상의 보수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에 대하여 로짓 분석을 이용한 1998년도와 2007년도의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제시하고 있다.⁶⁾

1) 교육수준: 준거집단: 고졸 이하

교육수준은 대체적으로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아주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아주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학력의 영향이 7년도와 비교하여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98년의 경우, 대학졸업자는 준거집단인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괜찮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9.5%,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5.3% 높으며,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에는 ‘괜찮은 일자리’는 22.8%, ‘좋은 일자리’는 15.3%, ‘아주 좋은 일자리’는 4.6%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도의 경우에는 대학졸업자와 대학원졸업자가 준거집단인 고졸 집단보다 약 6.0%에서 11.5%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2) 성별: 준거집단: 남성

성별은 일자리의 질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며 그 영향은 지난 10년 동안 더욱 커진 것으로

6) 본 절의 내용은 선행연구(송영남(2010))와 구성과 일부 분석결과가 유사함. 그러나 본 연구가 일하는 가구주만이 아닌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전년도의 ‘그저 그런 일자리’ 여부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서 분석결과에 차이가 있음. 1998년도와 2007년을 분석범위로 설정한 이유는 송영남(2010) 참조.

분석되었다. 1998년의 경우에 여성이 '괜찮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약 7.9%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나 '좋은 일자리'와 '아주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은 성별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여성이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아주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각각 23.1%, 21.2%, 5.1%로 남성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낮아져서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아주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수 있는 확률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는데 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성별 임금 격차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3) 직종: 준거집단: '전문직 및 화이트칼라'

직종이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며 지난 10년 동안 그 영향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전문직 및 화이트칼라' 직종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1998년도와 2007년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블루칼라직종'에 근무할 경우 '화이트칼라 직종'보다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아주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서비스 및 판매직' '사무직' 등도 모든 형태의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준거집단인 '전문직 및 화이트칼라 직종'보다 낮으나 일부 일자리에서 유의하게 낮으며, '아주 좋은 일자리'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모든 직종이 준거집단 직종보다 유의하게 낮다. 1997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2007년도에는 사무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이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더욱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어 직종간 격차가 더욱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지역: 준거집단: 서울

KLIPS자료의 지역대표성이 부족하여 지역을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6개 권역으로 분리하고 서울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지역의 영향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도에는 부산경남울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가구주들이 '모든 종류의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준거집단인 서울지역과 비교해서 유의적으로 낮으나 2007년도에는 대구경북지역만이 서울지역 가구주와 비교하여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와 '아주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서 서울지역과의 격차가 커진 반면 대구경북지역 외의 지역은 서울지역과 유의적인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5) 기업의 규모: 준거집단: ‘1,000명 이상 대기업’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양질의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커지며 지난 10여년 동안 기업의 규모가 양질의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가되었다. 다만 공기업과 500인 이상 1,000명 이하의 대기업의 근로자는 준거집단인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대부분의 양질의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500인 미만 기업은 모두 대기업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 일자리 결정 변수와 한계효과 (1998년, 2007년)

변 수	빈곤선 150% 이상 (괜찮은 일자리)		빈곤선 200% 이상 (좋은 일자리)		빈곤선 300% 이상 (아주 좋은 일자리)	
	계 수		계 수		계 수	
	1998년	2007년	1998년	2007년	1998년	2007년
상수	.350***	.739***	.078*	.494***	.005	-.024
교육수준: 준거집단: 고졸이하						
대학교 이상	.095***	.007	.053***	.039	.005	.060***
대학원 이상	.228***	-.036	.153***	.052	.046**	.115**
경험	-.000	-.011	.001	-.004	-.000	.007
경험2	-.000	-.000	-.000	-.000	.000	-.000**
성별	-.050*	-.231**	-.022	-.212***	-.002	-.051**
직업: 준거집단: 전문직 등						
사무직	-.036	-.046	-.020	-.061	-.005	-.043**
서비스/판매직	-.061***	-.079	-.028	-.085*	.014	-.058***
농업	-.097***	-.281***	-.035	-.213***	.001	-.085***
조립가공직 등	-.128***	-.110***	-.056***	-.117***	-.016**	-.098***
거주지역 준거집단: 서울						
인천경기강원	-.056***	-.001	-.028**	-.027	-.010**	-.017
부산경남울산	-.026	.022	-.008	-.017	-.012**	.021
대구경북	-.131***	-.082*	-.065***	-.087**	-.023***	-.044**
대전충청	-.081***	-.018	-.056***	-.031	-.008	-.030
광주전라	-.082***	.026	-.007	-.024	-.003	-.018

변 수	빈곤선 150% 이상 (괜찮은 일자리)		빈곤선 200% 이상 (좋은 일자리)		빈곤선 300% 이상 (아주 좋은 일자리)	
	계 수		계 수		계 수	
	1998년	2007년	1998년	2007년	1998년	2007년
기업 규모: 준거집단: 1,000인 이상 대기업						
공기업 등	-.136***	.008	-.073***	-.046	-.003	-.061***
500인 이상 기업	-.059	.225	.018	-.067	.087	.081
50인~499인	-.106***	-.201***	-.051***	-.248***	-.009	-.113***
5~49인 기업	-.121***	-.260***	-.062***	-.316***	-.005	-.154***
1~4인 기업	-.169***	-.399***	-.071***	-.346***	-.006	-.131***
자영업(나홀로)	-.089**	-.119*	-.008	-.122**	-.035	-.089**
자영업(피고용자)	-.004	.141**	.070*	.183**	.035	.082
미확인 규모	-.363***	-.557***	-.171***	-.431***	-.032***	-.197***
정규직 여부	.081***	.244***	.074***	.286***	.016	.146***
그저그런 일자리 여부	-.359***	-.155***	-.307***	-.189***	-.233**	-.133***

주: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자료: 각 년도 KLIPS를 이용하여 얻어진 회귀분석 결과임.

한편 피고용자가 없는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는 모든 종류의 양질의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낮은 반면 1인 이상의 피고용자를 가진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보다 '좋은 일자리' 이상을 보유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이는 규모가 있는 자영업 육성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세자영업자가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2007년도에 1998년보다 준거집단과 비교해서 유의적으로 낮아졌음을 볼 때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졌음을 알 수 있다.

6) 정규직 여부: 준거집단: 정규직

정규직 여부는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또는 '아주 좋은 일자리'를 가질 확률에 영향을 주며 그러한 영향이 1998년과 비교하여 2007년에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수 차이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2007년도의 경우, 정규직은 임시직보다 모든 범주의 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할 확률이 최저 14.6%, 최고 24.4% 이상 높음을 알 수 있으며 1998년의 1.6%에서 8.1% 수준보다 크게 높아졌다.

7) 전년도에 ‘그저그런 일자리’ 여부

전년도에(1998년의 경우는 1997년, 2007년의 경우는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를 소유한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낮아서 전년도의 일자리의 질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의 영향이 1998년보다 낮은 이유는 1998년은 바로 전년도인 1997년과 비교되나 2007년도의 경우에는 1998년과 비교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과 2007년은 10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지속됨을 알 수 있다.

2. ‘좋은 일자리 분포’의 변화 및 결정요인

1) ‘좋은 일자리 분포’의 지역별 변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괜찮은 일자리’의 전국평균은 약 41.6%였으며 서울(45.6%), 부산경남울산(42.5%), 경기인천(42.0%)의 순으로 서울과 부산경남울산, 경기인천을 제외한 타 지역의 ‘괜찮은 일자리’ 분포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좋은 일자리’와 ‘아주 좋은 일자리’의 전국평균은 각각 26.5%, 10.6%로 서울(30.2%과 13.8%)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23.0%), 대전충청(8.0%)이 가장 낮았다.

1997년 이후에 모든 형태의 양질의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8년도에는 전국의 ‘괜찮은 일자리’의 비율은 36.2%로 1997년보다 무려 5.4%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대구경북(9.7%포인트), 부산경남울산(6.7%포인트), 대전충청(5.7%포인트)의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동 기간에 ‘좋은 일자리’의 비율은 대구경북(9.8%포인트), 대전충청(8.6%)의 감소율이 전국평균인 5.0%포인트보다 높았다. 한편 ‘가장 좋은 일자리’의 경우에는 전국의 비율이 4.8%포인트 하락하였는데, 대구경북(5.3%포인트)이 전국평균을 상회하였으며 대전충청지역이 1.4%포인트 하락하여 가장 적게 영향을 받았다. 한편, 모든 일자리의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경북 지역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구경북지역이 외부의 영향에 민감한 산업 구조를 가졌거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어서 추후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구경북지역의 외부의 영향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일자리 질의 회복 속도에서도 알 수 있다. 전국의 ‘괜찮은 일자리’는 1998년도의 36.2%에서 2007년도의 59.6%로, ‘좋은 일자리’는 21.5%에서 47.1%로, ‘아주 좋은 일자리’는 동 기간에 7.1%에서 23.0%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대구경북지역의 상승률(29.0%포인트, 27.8%포인트, 15.7%포인트)이 가장 높았다.

〈표 3〉 가구주의 일자리 분포의 변화

(단위 : %)

일자리 종류별 (빈곤선 대비 비율)	지 역						
	전체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1997							
>=150	41.6	45.6	42.0	42.5	35.3	38.0	37.2
>=200	26.5	30.2	26.7	24.4	23.3	26.1	23.0
>=300	10.6	13.8	10.3	10.8	8.0	6.7	8.3
1998							
>=150	36.2	42.1	37.6	35.8	25.6	32.3	32.6
>=200	21.5	25.8	22.1	21.2	13.5	17.5	20.7
>=300	7.1	10.5	6.7	6.4	2.7	5.3	6.8
2007							
>=150	59.6	58.9	60.9	63.0	54.6	58.3	56.8
>=200	47.1	49.0	46.7	51.5	41.3	45.3	43.8
>=300	24.0	27.5	23.3	27.2	18.4	20.0	21.9

자료: 각 년도 KLIPS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한 결과임.

2007년도에는 부산경남울산지역의 '괜찮은 일자리' 비율이 63.0%로 가장 높으며, 경기인천(60.9%)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며 나머지 지역은 전국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한편 '괜찮은 일자리'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경남울산지역과 가장 낮은 대구경북은 약 8.4%포인트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여 지역 간 격차는 약 13.4%이다.

빈곤선의 200% 수준 이상의 일자리인 '좋은 일자리'는 부산경남울산지역이 51.5%로 가장 높으며, 서울(49.0%), 경기인천(46.7%)의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대구경북은 41.3%로 부산경남울산과 약 10.2%포인트의 격차가 존재하여 지역 간 격차는 약 19.9%이다.

한편, 빈곤선의 300% 수준인 '아주 좋은 일자리'는 서울이 27.5%로 가장 높으며, 부산경남울산이 27.2%로 가장 낮은 지역인 대구경북과 약 9.1%포인트의 격차가 존재하여 지역 간 격차는 약 33.1%로 조사되어 일자리의 질이 높아질수록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좋은 일자리 분포’의 이행과정의 결정요인

다음 절에서는 외환위기 직후의 침체기(1997-1998)와 회복기(1998-2007)의 ‘좋은 일자리 분포’의 변화와 결정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좋은 일자리 분포’의 지역별 이행과정: 1997년-1998년: 침체기

① 전국

〈표 4〉는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일자리 분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그저그런 일자리’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한 가구주는 약 14.7%(324개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로 퇴출한 가구주는 약 34.8%(547개 일자리)로 진입가구주보다 퇴출가구주가 훨씬 많아서 ‘그저그런 일자리’의 순증가효과가 있었다. ‘그저그런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진입한 가구주는 각각 9.3%, 3.0%이며 ‘좋은 일자리’와 ‘아주 좋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로 퇴출한 가구주가 각각 44.9%, 58.1%로 ‘그저그런 일자리’의 순증가효과가 있었다.

한편, ‘그저그런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또는 ‘아주 좋은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각각 85.3%, 65.2%, 90.7%, 55.1%, 97.0%, 41.9%로 ‘그저그런 일자리’로의 진입이 매우 활발한 반면 퇴출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② 서울 지역

서울지역에서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그저그런 일자리’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한 가구주는 약 21.0%(116개), ‘괜찮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로 퇴출한 가구주는 약 32.9%(152개)로 진입가구주보다 퇴출가구주가 훨씬 많아서 ‘그저그런 일자리’의 순증가효과가 있었다. ‘그저그런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 또는 ‘아주 좋은 일자리’로 진입한 가구주는 각각 13.1%(93개), 4.3%(38개)이며 ‘좋은 일자리’와 ‘아주 좋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로 퇴출한 가구주가 각각 44.2%(134개), 47.3%(62개)로 ‘그저그런 일자리’의 순증가효과가 있었다.

한편, ‘그저그런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또는 ‘아주 좋은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각각 79.0%, 67.1%, 86.9%, 55.8%, 95.7%, 52.7%로 ‘그저그런 일자리’로의 진입이 매우 활발한 반면 퇴출은 활발하지 않다.

③ 서울 외 지역

서울 외 지역도 서울 지역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그저그런 일자리'의 순증가효과가 있었으며, '그저그런 일자리'로의 진입이 매우 활발한 반면 퇴출은 활발하지 않은 것이 보편적이다. 다만 대구경북지역에서 '그저그런 일자리'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한 가구는 9.7%(27개), '괜찮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로 퇴출한 가구는 48.3%(71개)이며, '그저그런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진입한 가구는 5.4%(18개), '좋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로 퇴출한 가구는 59.3%(54개), '그저그런 일자리'에서 '아주 좋은 일자리'로 진입한 가구는 0.8%(3개), '아주 좋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로 퇴출한 가구는 77.8%(21개)로 위의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평균보다 '그저그런 일자리' 증가효과가 훨씬 컸음을 알 수 있다.

<표 4> 일자리 분포의 이행: 1997-1998

(단위 : %)

전 국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2434*)	괜찮은 일자리(1347)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2211)	85.3	14.7
	괜찮은 일자리 (1570)	34.8	65.2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2976)	좋은 일자리(805)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2790)	90.7	9.3
	좋은 일자리 (991)	44.9	55.1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3515)	아주 좋은 일자리 (266)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3390)	97.0	3.0
	아주 좋은 일자리(391)	58.1	41.9
서울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589)	괜찮은 일자리(426)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553)	79.0	21.0
	괜찮은 일자리 (462)	32.9	67.1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753)	좋은 일자리(262)

서울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712)	86.9	13.1
	좋은 일자리 (303)	44.2	55.8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908)	아주 좋은 일자리 (107)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884)	95.7	4.3
	아주 좋은 일자리 (131)	47.3	52.7

대구경북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321)	괜찮은 일자리(103)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277)	90.3	9.7
	괜찮은 일자리 (147)	48.3	51.7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369)	좋은 일자리(55)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333)	94.6	5.4
	좋은 일자리 (91)	59.3	40.7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415)	아주 좋은 일자리 (9)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397)	99.2	0.8
	아주 좋은 일자리 (27)	77.8	22.2

* 가구주 수.

* 다른 지역의 자료는 부록 참조

(2) ‘좋은 일자리 분포’의 지역별 이행과정: 1998년-2007년: 회복기

① 전국

〈표 5〉는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일자리 분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동 기간에 ‘그저그런 일자리’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한 가구주는 약 39.8%(566개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로 퇴출한 가구주는 약 30.8%(368개 일자리)로 퇴출가구주보다 진입가구주가 훨씬 많아서 ‘그저그런 일자리’의 순 감소효과가 있었다.

‘그저그런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와 ‘아주 좋은 일자리’로 진입한 가구주는 각각 32.0%(570개), 17.7%(382개)이며 ‘좋은 일자리’와 ‘아주 좋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

자리'로 진입한 가구주가 각각 38.5%(321개), 62.0%(282개)로 '그저그런 일자리'의 순 감소효과가 있었다.

한편, '그저그런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또는 '아주 좋은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각각 60.2%, 69.2%, 68.0%, 61.5%, 82.3%, 38.0%로 '그저그런 일자리'로의 퇴출보다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이 더 활발하다.

② 서울 지역

서울지역에서 1998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그저그런 일자리'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한 가구주는 약 38.1%(112개), '괜찮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로 퇴출한 가구주는 약 30.5%(94개)로 '그저그런 일자리'의 순 감소효과가 있었다. '그저그런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와 아주 좋은 일자리로 진입한 가구주는 각각 32.1%(122개), 19.1%(91개)이며 '좋은 일자리'와 '아주 좋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로 퇴출한 가구주가 각각 36.0%(80개), 59.2%(74개)로 '그저그런 일자리'의 순 감소효과가 있었다.

한편, '그저그런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또는 '아주 좋은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각각 61.9%, 69.5%, 67.9%, 64.0%, 80.9%, 40.8%로 '그저그런 일자리'로의 퇴출보다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이 더 활발하다.

③ 서울 외 지역

서울 외 지역도 서울 지역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1998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그저그런 일자리'의 순 감소효과가 있었으며, '그저그런 일자리'로의 퇴출보다는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이 활발하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전국평균보다 '그저그런 일자리' 감소효과가 훨씬 컸음을 알 수 있다.

<표 5> 일자리 분포의 이행: 1998-2007

(단위 : %)

전 국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1223)	괜찮은 일자리(1394)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1421)	60.2	39.8
	괜찮은 일자리 (1196)	30.8	69.2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1534)	좋은 일자리(1083)

전 국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1783)	68.0	32.0
	좋은 일자리 (834)	38.5	61.5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2062)	아주 좋은 일자리 (555)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2162)	82.3	17.7
	아주 좋은 일자리(455)	62.0	38.0

서울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276)	괜찮은 일자리(326)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294)	61.9	38.1
	괜찮은 일자리 (308)	30.5	69.5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338)	좋은 일자리(264)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380)	67.9	32.1
	좋은 일자리 (222)	36.0	64.0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460)	아주 좋은 일자리 (142)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477)	80.9	19.1
	아주 좋은 일자리 (125)	59.2	40.8

대구경북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152)	괜찮은 일자리(126)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173)	64.7	35.3
	괜찮은 일자리 (105)	38.1	61.9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186)	좋은 일자리(92)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207)	75.4	24.6
	좋은 일자리 (71)	42.3	57.7

(3) 일자리 분포 이행의 결정요인

① '좋은 일자리' 진입 결정요인

위의 분석결과는 1997년과 1998년 사이, 그리고 1998년과 2007년 사이에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아주 좋은 일자리' 와 '그저그런 일자리' 간의 활발한 이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가 다음의 표에 제시되었다.

먼저 전년도에 '그저그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가구주가 다음 해에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아주 좋은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설명변수로 하였으며 종속변수는 1997년도(또는 1998년도)에 '그저그런 일자리'를 소유한 가구주가 1998년도(또는 2007년도)에 '그저그런 일자리'를 벗어나면 '1'의 값을, 계속 '그저그런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으면 '0'의 값을 가지는 종속변수를 적용하였다.

아래의 <표 6>에 있는 분석결과는 학력, 성별, 직종, 지역, 기업의 규모, 정규직 여부가 '좋은 일자리' 진입 확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아주 좋은 일자리'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입 확률이 높다. 가구주가 여성일 때 '좋은 일자리' 진입확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98~2007년 사이의 경우가 1997~1998년 사이보다 성별 영향력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블루칼라 집단이 준거집단인 전문직 및 화이트칼라 집단보다 '좋은 일자리' 진입 확률이 낮으며, 1998~2007년 사이가 1997~1998년 사이보다 직종별 영향력이 훨씬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규모 역시 공기업, 중·소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이 준거집단인 500인 이상 대기업보다 훨씬 낮으며 1998~2007년에 그 영향력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정규직 여부가 1997~1998년 사이에는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확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1998~2007년 사이에 그 영향력이 훨씬 커졌다. 마지막으로 1997~1998년 사이의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확률이 수도권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② '좋은 일자리' 퇴출 결정요인

아래의 <표 7>은 전년도에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가구주가 다음 해에 '그저그런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6> 좋은 일자리 진입 결정 변수와 한계효과 (1997-1998년, 1998-2007년)

변 수	빈곤선 150% 이상 (괜찮은 일자리)		빈곤선 200% 이상 (좋은 일자리)		빈곤선 300% 이상 (아주 좋은 일자리)	
	계 수		계 수		계 수	
	1998년	2007년	1998년	2007년	1998년	2007년
상수	.022	.565***	-.063**	.368**	-.048***	-.150*
교육수준: 준거집단: 고졸이하						
대학교 이상	.019	.001	.039**	.052	.006	.070***
대학원 이상	.008	-.095	.090*	.032	.050*	.086*
경험	.001	-.015	.001	-.010	-.000	.007
경험2	-.000	.000	-.000	.000	-.000	-.000**
성별	-.036**	-.233***	-.015	-.192***	.002	-.043**
직업: 준거집단: 전문직 등						
사무직	-.007	.066	-.011	-.019	-.005	-.032*
서비스/판매직	-.021	-.026	-.015	-.076*	.005	-.052***
농업	-.027	-.250***	-.010	-.177***	-.001	-.061***
조립가공직 등	-.053**	-.101**	-.028**	-.105***	-.014**	-.078***
거주지역 준거집단: 서울						
인천경기강원	-.053***	-.016	-.014*	-.015	-.003	-.021
부산경남울산	-.039***	.053	-.009	.037	-.006	.037
대구경북	-.064***	-.071	-.034***	-.079**	-.013***	-.022
대전충청	-.053***	-.064	-.034***	-.023	-.000	-.031
광주전라	-.057***	.030	-.023**	-.011	-.003	-.009
기업 규모: 준거집단: 500인 이상 대기업						
공기업 등	-.053***	.047	-.041***	.014	-.012***	-.033*
50인~499인	-.050***	-.092	-.031***	-.177***	-.012***	-.088***
5~49인 기업	-.045**	-.131**	-.035***	-.226***	-.005	-.119***
1~4인 기업	-.069***	-.271***	-.037***	-.251***	-.009**	-.106***
자영업(나홀로)	-.044**	-.017	-.011	-.076	-.002	-.053*
자영업(피고용자)	.013	.292***	.045	.193**	.032	.104*
미확인 규모	-.190***	-.389***	-.096***	-.323***	-.019***	-.147***
정규직 여부	-.002	.181***	.019	.169***	.007	.119***

주: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자료: 각 년도의 KLIPS를 이용하여 얻어진 회귀분석 결과임.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설명변수로, 종속변수는 1997년도(또는 1998년도)에 '좋은 일자리'를 소유한 가구주가 1998년도(또는 2007년도)에 '그저그런 일자리'를 갖게 되면 '1'의 값을, 계속 '좋은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으면 '0'의 값을 갖게 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7>의 분석결과는 학력, 성별, 직종, 지역, 기업의 규모, 정규직 여부가 '그저그런 일자리' 진입 확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학력은 1997~1998년의 경우에 '괜찮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로의 진입 확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8~2007년의 경우에는 '아주 좋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로의 진입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은 1997~1998년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지만 1998~2007년에는 '괜찮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로의 진입확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종의 경우에도 진입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효과는 1998~2007년도에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은 '아주 좋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의 진입확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대구경북지역은 모든 일자리에서 1997~1998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1998~2007년의 경우에는 '아주 좋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로의 진입 확률만을 높였다. 기업의 규모 역시 공기업, 중·소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저그런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이 준거집단인 500인 이상 대기업보다 훨씬 높으며 1997~1998년보다 1998~2007년에 그 영향력이 훨씬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정규직 여부가 '그저그런 일자리'에 진입할 확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며 1998~2007년에 그 영향력이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97~1998년 사이의 '아주 좋은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지역변수는 '그저그런 일자리'에 진입할 확률이 수도권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좋은 일자리 퇴출 결정 변수와 한계효과 (1997-1998년, 1998-2007년)

변 수	빈곤선 150% 이상 (괜찮은 일자리)		빈곤선 200% 이상 (좋은 일자리)		빈곤선 300% 이상 (아주 좋은 일자리)	
	계 수		계 수		계 수	
	1998년	2007년	1998년	2007년	1998년	2007년
상수	-.259***	-.743***	-.071	-.283	-.095	-.081
교육수준: 준거집단: 고졸이하						
대학교 이상	-.132***	-.006	-.093**	.003	-.005	-.025

변 수	빈곤선 150% 이상 (괜찮은 일자리)		빈곤선 200% 이상 (좋은 일자리)		빈곤선 300% 이상 (아주 좋은 일자리)	
	계 수		계 수		계 수	
	1998년	2007년	1998년	2007년	1998년	2007년
대학원 이상	-.241***	.023	-.207***	-.072	-.096	-.266**
경험	.004	.008	.005	-.007	.001	-.004
경험2	-.000	-.000	-.000	.000	.000	.000
성별	.019	.128*	.031	.188**	.076	-.088
직업: 준거집단: 전문직 등						
사무직	.046	.140**	.027	.134	-.051	.079
서비스/판매직	.063	.129*	.021	.067	-.187*	.059
농업	.170*	.196**	.178	.186*	.150	.235***
조립가공직 등	.142***	.077	.088*	.108**	.033	.182***
거주지역 준거집단: 서울						
인천경기강원	.024	-.010	.048	.061	.183***	-.003
부산경남울산	-.009	.024	-.028	.028	.148**	.077
대구경북	.140***	.059	.117*	.063	.282***	.220***
대전충청	.018	-.067	.041	.026	.238**	-.051
광주전라	.024	.003	-.135**	.057	-.015	.031
기업 규모: 준거집단: 500인 이상 대기업						
공기업 등	.208***	.175	.153**	.000	.101	.177**
50인~499인	.102	.435***	.059	.342***	-.103	.207***
5~49인 기업	.147**	.512***	.096	.450***	.061	.333***
1~4인 기업	.211***	.623***	.089	.536***	.046	.322***
자영업(나홀로)	.035	.356***	-.004	.180	.219	.253**
자영업(피고용자)	-.049	.138	-.094	-.153	.067	-.101
미확인 규모	.509***	.793***	.394***	.641***	.360***	.431***
정규직 여부	-.216***	-.244***	-.250***	-.438***	-.121***	-.268**

주: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자료: 각 년도의 KLIPS를 이용하여 얻어진 회귀분석 결과임.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11차 년도의 KLIPS자료를 이용하여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선행연구(송영남(2010))의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아주 좋은 일자리’의 정의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전년도 일자리의 질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게 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1997년에서 2007년 사이에 사회·경제적 요소의 영향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며 1997-2007년 사이의 ‘좋은 일자리’의 변화추세를 이용하여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교육수준’, ‘성별’, ‘직종’, ‘기업의 규모’, ‘정규직 여부’, 그리고 ‘수도권 여부’가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998년도보다 2007년도에 ‘성별’이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직종, ‘정규직 여부’ 역시 1998년도보다 2007년도에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그저그런 일자리’를 소유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다음 해에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수준’, ‘지역’, ‘전년도 일자리의 질’은 1998년도보다 2007년도에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주는 영향이 적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좋은 일자리 분포’의 변화에 대하여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전국은 ‘그저그런 일자리’의 순 증가효과가 있었으며 서울 지역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전국의 지역 중, 대구경북의 ‘그저그런 일자리’ 순 증가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8년과 2007년 사이에 전국은 ‘그저그런 일자리’의 순 감소효과가 있었으며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전국의 지역 중, 역시 대구경북의 ‘그저그런 일자리’ 순 감소효과가 가장 커서 대구경북이 외부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분포의 이행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좋은 일자리’ 진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과 ‘좋은 일자리’ 퇴출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먼저 학력, 성별, 직종, 지역, 기업의 규모, 정규직 여부가 ‘좋은 일자리’ 진입 확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먼저 ‘아주 좋은 일자리’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입 확률이 높으며, 가구주가 여성일 때 ‘좋은 일자리’ 진입확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블루칼라 집단이 준거집단인 전문직 및 화이트칼라 집단보다 ‘좋은 일자리’ 진입 확률이 낮으며, 공기업, 중·소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이 준거집단인 500인 이상 대기업보다 훨씬 낮으며, 마지막으로 정규직 여부가

1997~1998년 사이에는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확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1998~2007년 사이에 그 영향력이 훨씬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변수들의 영향이 두 기간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간의 차이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좋은 일자리’ 퇴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는 학력, 성별, 직종, 지역, 기업의 규모, 정규직 여부가 ‘그저그런 일자리’ 진입 확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학력은 대체적으로 ‘그저그런 일자리’로의 진입 확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은 1997~1998년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지만 1998~2007년에는 ‘괜찮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로의 진입확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종의 경우에도 진입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효과는 1998~2007년도에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은 ‘아주 좋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의 진입확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대구경북지역은 모든 일자리에서 1997~1998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1998~2007년의 경우에는 ‘아주 좋은 일자리’에서 ‘그저그런 일자리’로의 진입 확률만이 유의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규모 역시 공기업, 중·소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저그런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이 준거집단인 500인 이상 대기업보다 훨씬 높으며 1997~1998년보다 1998~2007년에 그 영향력이 훨씬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여부가 ‘그저그런 일자리’에 진입할 확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며 1998~2007년 사이에 그 영향력이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 블루칼라, 소규모기업 근로자,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번 ‘좋은 일자리’에서 벗어나면 다시 진입할 확률이 비교집단에 비해서 크게 낮으며 지역변수는 좋은 일자리의 ‘진입, 퇴출’에는 유의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각 지역의 일자리창출정책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대하여 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1997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의 10년 동안 ‘좋은 일자리’의 이행과정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좋은 일자리’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보수 외의 변수인 노동에 대한 일자리 안정성, 사회적 인식, 비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부록 표 1〉 변수의 정의: KLIPS 1998-2007

변 수	정 의	평균값 (1998)	평균값 (2007)
교육수준	준거집단: 고졸이하	73.8	71.1
	대졸	22.9	24.5
	대학원 졸업 이상	3.4	4.4
일자리 경험 (일자리 경험)2	경험: 나이 - 학력 나이 (경험)2	27.5	32.7
성별	=0 남성	88.0	86.4
	=1 여성	12.0	13.6
직종	준거집단: 화이트칼라: 전문직	23.2	18.9
	사무직	7.0	7.1
	서비스직	9.3	6.2
	농업	5.7	4.8
	조립 가공직 및 기타	54.9	55.4
지역	준거집단: 서울	26.8	23.0
	인천·경기·강원	26.9	32.0
	부산·경남·울산	18.6	17.7
	대구·경북	11.2	10.6
	대전·충청	7.7	8.0
	광주·전라	8.7	8.6
기업 규모	준거집단: 임금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6.1	6.4
	500-999 명 규모 기업	1.1	1.3
	50-499 명 규모 기업	9.3	9.5
	소규모 기업: 5-49 명 규모 기업	16.1	16.7
	초소규모 기업: 1-4 명 규모 기업	5.3	6.2
	공공기관	8.7	6.9
	나홀로 자영업자	19.9	20.5
	피고용자가 있는 자영업자	10.3	10.9
	미확인 규모	23.3	21.7
정규직 여부	= 1 정규직	38.9	38.9
	= 0 기타	61.1	61.1
그저그런 일자리 여부	전년도의 일자리 상태: = 1 전년도에 '괜찮은 일자리' 아님:	58.5	54.3
	= 1 전년도에 '좋은 일자리' 아님	73.8	68.1
	= 1 전년도에 '아주 좋은 일자리; 아님	89.7	82.6
표본 수		3,781	2,617

자료: KLIPS 각 년도

【참고문헌】

- 금재호 (2003), “일과 빈곤,”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대한상공회의소(2004), “2030세대가 원하는 좋은 직장,” 『실태조사보고서』, 2004.12.
- 방하남, 이상호 (2006), “좋은 일자리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 제40집 1호 pp. 93-126.
- 석재은 외 (200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보고서 2005-09.
- 송영남 (2010), “‘좋은 일자리’의 결정요인과 지역 간 분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 24권 제 4호 pp. 209-233.
- Ahlburg, Dennis A., *et al* (1995), “Are Good Jobs Disappearing? Evidence for Minnesota from the 1980 and 1990 Censuses,” 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Affairs, 1995.
- Clark, Andrew E., (1998) “What Makes a Good Job?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Report prepared for Working Party 7 of the OECD.
- Levy, Frank S., and Richard C. Michel (1991), “The Economic Future of American Families: Income and Wealth Trend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1991.
- Morissette, Rene and Anick Johnson (2005), “Are Good Jobs Disappearing in Canada?” FRBNY Economic Policy Review, August 2005.

〈부록 표 1〉 일자리 분포의 이행: 1997-1998

(단위 : %)

대전충청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201)	괜찮은 일자리(92)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183)	89.6	10.4
	괜찮은 일자리 (110)	33.6	66.4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243)	좋은 일자리(50)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219)	95.4	4.6
	좋은 일자리 (74)	45.9	54.1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278)	아주 좋은 일자리 (15)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277)	96.0	4.0
	아주 좋은 일자리 (16)	75.0	25.0

인천경기강원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642)	괜찮은 일자리(375)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583)	85.4	14.6
	괜찮은 일자리 (434)	33.2	66.8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796)	좋은 일자리(221)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742)	90.2	9.8
	좋은 일자리 (275)	46.2	53.8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3515)	아주 좋은 일자리 (266)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910)	96.8	3.2
	아주 좋은 일자리 (107)	63.6	36.4

부산울산경남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454)	괜찮은 일자리(250)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407)	86.2	13.8
	괜찮은 일자리 (297)	34.7	65.3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557)	좋은 일자리(147)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532)	91.2	8.8
	좋은 일자리 (172)	41.9	58.1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660)	아주 좋은 일자리 (44)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622)	97.7	2.1
	아주 좋은 일자리 (82)	62.2	37.8

광주전라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227)	괜찮은 일자리(101)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208)	89.9	10.1
	괜찮은 일자리 (120)	33.3	66.7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258)	좋은 일자리(70)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252)	92.9	7.1
	좋은 일자리 (76)	31.6	68.4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305)	아주 좋은 일자리 (23)
1997년	그저그런 일자리 (300)	97.3	2.7
	아주 좋은 일자리 (28)	46.4	53.6

* 가구주 수.

<부록 표 2> 일자리 분포의 이행: 1998-2007

(단위 : %)

인천경기강원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374)	괜찮은 일자리(464)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454)	57.7	42.3
	괜찮은 일자리 (384)	29.2	70.8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481)	좋은 일자리(357)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574)	65.7	34.3
	좋은 일자리 (264)	39.4	60.6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656)	아주 좋은 일자리 (182)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688)	82.4	17.6
	아주 좋은 일자리 (150)	59.3	40.7

부산울산경남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203)	괜찮은 일자리(260)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248)	55.6	44.4
	괜찮은 일자리 (215)	30.2	69.8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261)	좋은 일자리(202)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322)	64.9	35.1
	좋은 일자리 (141)	36.9	63.1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353)	아주 좋은 일자리 (110)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394)	78.9	21.1
	아주 좋은 일자리 (69)	60.9	39.1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239)	아주 좋은 일자리 (39)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241)	86.7	13.3
	아주 좋은 일자리 (37)	81.1	18.9

대전충청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106)	괜찮은 일자리(104)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129)	64.3	35.7
	괜찮은 일자리 (81)	28.4	71.6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130)	좋은 일자리(80)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158)	68.4	31.6
	좋은 일자리 (52)	42.3	57.7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173)	아주 좋은 일자리 (37)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183)	85.2	14.8
	아주 좋은 일자리 (27)	63.0	37.0

광주전라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112)	괜찮은 일자리(114)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123)	63.4	36.6
	괜찮은 일자리 (103)	33.0	67.0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138)	좋은 일자리(88)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142)	73.9	26.1
	좋은 일자리 (84)	39.3	60.7
		2007년	
		그저그런 일자리(181)	아주 좋은 일자리 (45)
1998년	그저그런 일자리 (179)	84.4	15.6
	아주 좋은 일자리 (47)	63.8	46.2

